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

김보람¹ · 이유진² · 김매이³

¹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²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 ³고려대학교 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policy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ciousness and happiness of the people of our country

Kim, Bo-Ram¹ · Lee, Yujin² · Kim, May³

^{1,3}Korea University · ²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policy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ciousness and happiness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evaluating leisure policies for the happy life of the people. In addition, specific leisure policy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happiness were identified. To this end, a sample of 9,469 adults in their 20s or older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Using SPSS 27.0, frequency analyse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rocess Macro 3.4 ver, Model 4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conclusions drawn through these research procedures and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leisure policy satisfaction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ciousness and happiness. Next, among leisure policy satisfaction factors, diversity of leisure facilities, legal guarantee of holidays and vacations, and progra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the order of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club foster and support showed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Therefore, starting with a positive perception of leisure, effective leisure policies that reflect the satisfaction and desires of the people should be continuously and actively devised and implemented. Through this, I hope that all of our people will be able to get closer to a more prosperous and happy life.

Key words : leisure consciousness, leisure policy satisfaction, happiness, leisure activities,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y

주요어 : 여가인식, 여가정책만족도, 행복, 국민여가활동조사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에서 지원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ay

E-mail: kimmay@korea.ac.kr

Received: April, 29, 2022 Revised: May, 30, 2022 Accepted: June, 17, 20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 및 발달은 생활수준의 양적 증가가 아닌,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욕구 충족으로 전환되며, 삶의 질적 향상 및 여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노용구, 2006). 따라서 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등을 삶의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재미, 사회적 유대감, 행복 등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여가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자기계발은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은 높은 행복지수로 연결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축에 밑거름이 되며(윤소영, 박두용, 2014),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긍정적 정서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김보람, 김매이, 2020). 정영금, 윤소영(2021)의 연구결과 여가활동 참여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은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복은 개인이 삶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생각과 느낌 혹은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며(Veenhoven, 1995),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세 가지 요인으로 개인의 기준점, 삶의 상황, 의지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이 중,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의지적 활동은 자발적인 활동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권장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COVID-19로 일상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실제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었다(주진영, 이세경, 원형중, 2021). 실제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각각 2019년 대비 0.2시간 증가한 3.7시간, 5.6시간으로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생활만족도는 52.5%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처럼 여가 가용시간은 늘었지만 여가시간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오히려 진정한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Jacobs & Gerson, 2001)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시간소비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여가를 오히려 노동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시간의 가치있는 활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여가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여가인식이란, 개인이 지각하는 여가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말하며(Beard & Ragheb, 1983), 여가지식, 자기인식, 여가태도, 여가참여와 의사결정기술을 포함한다(Peterson & Stumbo, 2000). 여가인식은 여가경험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김보람, 김매이, 2021). 이에 여가교육을 통하여 여가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여가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원희, 여인성, 이정일(2021)의 연구결과 여가인식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2015)의 연구에서도 놀이와 여가에 대한 올바른 긍정적인 인식이 행복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여가인식은 여가행동에 대한 동기유발에 중요하게 작용하여(최석환, 김영환, 조운용, 2009), 여가활동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긍정적인 여가인식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더라도 여가에 대한 만족이 뒷받침

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지속적 참여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전반적 만족이 수반될 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황향희, 김보람, 2012). 특히, 국민 복지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여가시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이에 따른 만족은 실제 여가참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에서 여가정책의 필요성과 여가정책만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소영 등(2014)은 여가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행복감 향상을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과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윤영(2019)은 자기계발, 및 건전한 여가 선용 방안을 위한 체계적인 여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여가정책은 여가에 대한 공적인 계획, 조직, 집행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복지와 생활만족 향상을 위해 여가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의미한다(이철원, 2005).

문화체육관광부(2015)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점 추진대책으로 여가 참여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시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근로자 휴가권 강화,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접근성 확대 등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와 함께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러한 정부의 여가정책은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안정으로 부국을 선도함으로써 법제화나 정책입안은 현 시대의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정이다(조민구, 2015). 더욱이 정부의 여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 수준은 여가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일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2020)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여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1)여가시설 다양성, 2)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4)동호회 육성 및 지원, 5)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6)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7)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으로 2019년부터 조사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정책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정책을 강구, 모색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Tennur(2013)의 연구결과 여가정책만족은 삶의 만족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진오, 정득, 이종석(2019)의 연구결과 여가정책만족은 공공여가시설만족과 여가생활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nsfield, Daykin & Kay(2020)는 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여가정책만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여가정책의 만족은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가축진과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써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여가정책만족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향후 국민의 만족과 요구를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여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및 평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시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도출시켰다. 첫째, 여가정책만족은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국내의 여가정책만족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2020)에서 실시

표 1.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성별	남성	4665	49.3
	여성	4804	50.7
연령	20대	1536	16.2
	30대	1644	17.4
	40대	1888	19.9
	50대	1858	19.6
	60대	1377	14.5
	70대 이상	1166	12.3
가구원 수	1인	1887	19.9
	2인	2543	26.9
	3인 이상	5039	53.2
가구 월 소득	100만원 미만	970	10.2
	100~200만원 미만	908	9.6
	200~300만원 미만	1362	14.4
	300~400만원 미만	1700	18.0
	400~500만원 미만	1612	17.0
	500~600만원 미만	1274	13.5
혼인상태	600만원 이상	1643	17.4
	미혼	2423	25.6
최종학력	기혼	5712	60.4
	사별·이혼·기타	1334	14.0
	초등학교졸업 이하	159	3.2
총사자 지위	중학교 졸업	784	15.7
	고등학교 졸업	702	14.1
	대학교 졸업 이상	3345	67.0
	상용근로자	2967	31.3
총사자 지위	임시근로자	511	5.4
	일용근로자	157	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5	4.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55	18.5
	무급가족종사자	173	1.8
	무직 및 기타	3511	37.1
total		9469	100.0

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샘플링 프레임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에 의해 생성되었다. 전문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1만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 응답자 수는 10,088명이며, 이 중 20대 이상 성인 9,469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변수선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여가인식, 여가정책만족, 행복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가인식은 ‘귀하는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1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척도로 구성되었다. 여가정책만족도는 국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7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여가시설’,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있다. 행복은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문항, 불행(1점)~행복(10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전문 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실사 감독원의 관리와 통제 하에 보완조사 및 재조사, 최종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설계와 자료처리를 위하여 여가학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Macro 3.4 ver, Model 4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변인 간 상관관계

여가인식, 여가정책만족,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결과 -.028에서 .778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정적(+), 부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8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번을 적용하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여가인식은 여가정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072, p<.001$), 여가정책만족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beta=.181, p<.001$), 여가정책만족은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행복에 대한 여가인식의 총 효과는 $\beta=.455(p<.001)$ 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여가정책

표 3.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

변인	β	SE	t	p	LLCI*	UCL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여가정책만족도)						
상수	4.323	.055	78.501	.000	4.215	4.431
여가인식	.072	.010	7.373	.000	.053	.092
종속변수 모형: 행복						
상수	3.633	.113	32.146	.000	3.411	3.854
여가인식	.442	.016	28.120	.000	.4114	.473
정책만족	.181	.016	11.002	.000	.148	.213

*LLCI= 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CLI= 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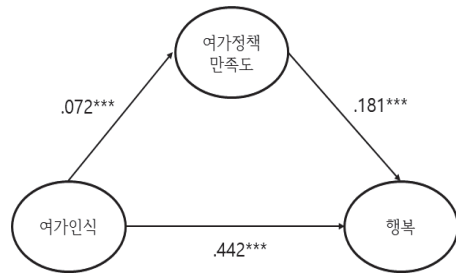


그림 1. 매개효과

표 2. 상관관계 분석

변인	M±SD	1	2	3	4	5	6	7	8	9
1.여가인식	5.53±0.96	1								
2.여가시설 다양성	4.84±1.01	.071***	1							
3.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70±1.08	.008	.734***	1						
4.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4.56±1.05	.003	.657***	.722***	1					
5.동호회 육성 및 지원	4.42±1.04	-.028**	.608***	.608***	.667***	1				
6.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4.42±1.12	-.027**	.606***	.604***	.588***	.675***	1			
7.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4.54±1.03	.009	.623***	.663***	.651***	.630***	.688***	1		
8.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	4.61±1.03	.064***	.605***	.595***	.595***	.586***	.638***	.778***	1	
9.행복	6.93±1.53	.284***	.119***	.110***	.092***	.062***	.079***	.095***	.112***	1

*** $p<.001$, ** $p<.01$

만족이 투입되면서 행복에 대한 여가인식의 직접효과는 $\beta=.442(p<.001)$ 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인식이 여가정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여가정책만족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여가인식과 행복 간 경로의 총 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여가정책만족은 여가인식과 행복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부트스트랩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간접효과

효과	β	SE	LLCI*	UCLII**
총효과	.455	.016	.4244	.486
직접효과	.442	.016	.411	.473
간접효과	.013	.002	.009	.018

*L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CLI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3. 여가정책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정책만족의 어떠한 변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여가정책만족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표 5. 여가정책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정책만족도	B	SE	β	t(p)	Tolerance	VIF
상수	5.940	.085		70.188		
㉠ 여가시설 다양성	.114	.025	.076	4.602***	.385	2.597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062	.025	.044	2.512*	.336	2.977
㉢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013	.024	.009	.548	.371	2.697
㉣ 동호회 육성 및 지원	-.076	.023	-.052	-3.261**	.414	2.413
㉤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009	.022	-.006	-.395	.406	2.463
㉥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013	.028	-.009	-.473	.295	3.389
㉦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	.112	.025	.076	4.450***	.359	2.789

Durbin-Watson=1.852, Adj R²=.018, F=25.678, * $p<.05$, ** $p<.01$ *** $p<.001$

결과, 여가시설 다양성($\beta=.076, p<.001$),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beta=.076, p<.001$), 동호회 육성 및 지원($\beta=-.052, p<.0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beta=.044, p<.05$) 순으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시설 다양성,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은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인식과 체계적인 여가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인식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여가정책만족의 과정을 통할 때 행복에 더욱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가인식은 행복에 직

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가인식은 여가정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가정책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정된 활동범위와 생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인식은 여전히 행복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어찌보면 코로나 19 이전에 가능했던 여가활동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른 다양한 제약으로 인하여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여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것은 아닌지 예측해 본다.

윤혜진, 김영문, 김은희(2016)의 연구결과 여가인식이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정책적 노력으로 여가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황옥경 등(2015)은 긍정적 여가인식을 통한 여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여가인식과 행복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총 효과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개변인인 여가정책 만족을 통하여 그 효과가 다소 높아진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정광현, 원철식(2002)은 여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여가활동에 적극적이며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여가인식이 여가정책만족에 일부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거나 상관성이 없는 부분은 연구대상을 세대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60대 이상 장노년층은 50대 이하의 청장년 세대에 비해 소극적, 제한적 여가인식이 형성된 바와 같이(윤혜진, 등, 2016) 연령세대별 여가인식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가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김은수, 정득, 이종석, 2018).

또한,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에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거나 관심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국민들의 여가정책 평가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여가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5.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외계층 여가활동 지원(2.5%)으로 나타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김은수 등(2020)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가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여가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며, 이는 여가정책이 반영된 공적시설에 대한 여가정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이러한 과정으로 여가정책만족은 개인의 행복 수준 향상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Tennur(2013)는 여가정책만족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조민구(2015)는 여가정책 만족은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하였다. Mansfield 등(2020)도 국민들의 여가정책만족 수준은 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여가정책만족도는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전문인력, 동호회 및 소외계층 지원, 관련법규, 공휴일보장 7가지 영역의 다양한 여가정책관련 요인들에 관하여 국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매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가정책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여가정책만족도를 국민들이 높게 인식할수록 더욱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가인식은 행복을 증진시키며, 긍정적 여가인식과 함께 여가정책만족이 수반될 때 보다 높은 행복지수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김은수 등(2020)은 여가인식은 여가정책만족을 위한 선행요소이며, 무엇보다 실제 여가활동 지속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 국민들의 여가정책만족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노용구(2007)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증대될 때 사회와 국가의 여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민들의 여가정책만족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있게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실제 여가정책만족이라는 욕구충족을 통하여 행복지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가정책만족 요인 중 여가시설 다양성,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순으로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은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비록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지만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소외계층 여가생활 지원,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정책 평가별 중요도에서 다양한 여가시설이 39.9%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39.0%로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재빈(2018)의 연구결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여가정책만족의 상대적 영향력은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 다양한 여가시설,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대적 중요 순위는 다르지만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여가정책만족 요인들과 일치한다.

이유진, 황선환, 김재운(2020)의 연구결과 공공여가시설만족과 민간여가시설만족 모두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영금 등(2021)의 연구결과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였으며, 생활권 내 다양한 여가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을 통해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심에 편향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 및 질 높은 여가프로그램의 보급이 요구된다.

또한, 최승목(2020)의 연구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집단은 비실시 집단보다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시간을 충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반적 여가생활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가시간의 증대로 이어지기에, 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은 여가시간의 증가로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충분한 여가시간의 확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작용된다(김보람 등, 2021). 그러나 실제 휴가 사용률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역대 최저 비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평균 휴가일 수는 2019년 대비 0.5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여가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복지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여가시설 및 여가프로그램 만족도는 여가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성과 기준이 된다(김선희, 2017).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만족은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소영(2016)은 여가정책의 방향을 행복증진에 두고 질 높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여가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여가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홈트레이닝과 같이 집에서 혹은 모바일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김상운, 2020) 만큼 현 상황과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여

가컨텐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은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집단을 위한 여가정책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거나 관심이 적은 결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여가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은 5.2%의 비율로 국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여가정책의 1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호회 활동 경험은 2020년 9.6%에 불과하며 더욱이 2018년 10.4%, 2019년 10.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소외계층 여가지원,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논의된 요인들처럼 대부분 개인 위주의 여가정책에 주로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문인력, 소외계층, 관련 법규는 주로 특정 집단을 위한 여가정책 이거나 혹은 광의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이나 중요성 인식이 다소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가인식과 실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정책만족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행복 지수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가정책만족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어 국민들의 여가정책만족은 행복한 삶을 위해 재차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민의 만족과 요구에 부합하는 여가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여가정책들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가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여가정책만족 요인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 및 논의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복지와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여가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적, 정책적 제도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가의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여가시설 마련과 여가시간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측면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가활동을 참여, 지속할 수 있는 맞춤형 여가유형과 참여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긍정적인 여가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비로소 국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여가정책을 강구할 것이다. 즉,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움직임은 보다 실효성 있는 여가정책이 실현되는데 발판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들의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먼저, 여가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여가정책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정책만족 요인 중 여가정책만족 요인 중 여가시설 다양성,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순으로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은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여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 수준은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행복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여가정책만족 요인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여가인식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만족과 욕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여가정책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향후 여가활동 참여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 여가인식, 여가정책만족과 행복 수준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정책만족과 관련하여 세대 간 구분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밀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참고문헌

- 강혜숙, 한학진(2012). 여가유형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여성 여가만족 및 행복수준 관계분석. *호텔관광연구*, 14(2), 234-252.
- 김보람, 김매이(2021). 여가활동 참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 결정요인. *여가학연구*, 19(3), 71-91.
- 김보람, 김매이(2020). 청소년들의 학업과 여가의 균형에 따른 여가시간, 여가비용 및 행복 수준. *여가학연구*, 18(3), 41-61.
- 김상윤(2020). [건강상식] '코로나 19' 제약에서 벗어난 홈트레이닝. *원강군사저널*, 7, 81-83.
- 김선희(2017). 공공여가시설의 서비스품질과 여가 서비스 전달체계만족 및 공동체意識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4), 37-49.
- 김은수, 정득, 이종석(2020). 공공 여가시설 만족도와 여가정책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여가인식의 조절효과: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 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95, 591-616.
- 노용구(2006). 여가 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의 타당성.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4), 153-165.
- 노용구(2007). 여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221-230.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양원희, 여인성, 이정일(2021). 성인의 헬스케어 여가 인지가 심리적 행복감 및 행동변화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0(1), 184-194.
- 윤소영(2016). 고령자 대상 여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0(4), 1-13.
- 윤소영, 박두용(2014). 한국인의 여가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 *여가학연구*, 12(1), 149-173.
- 윤혜진, 김영문, 김은희(2016).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8(12), 353-370.
- 이유진, 황선환, 김재운(2020).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자원 요인. *여가학연구*, 18(1), 19-33.
- 이윤영(2019). 사행산업 경험자의 공공여가시설 인지도가 여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정책 중요도와 민간여가시설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2), 51-65.
- 이철원(2005). 현대여가학. 서울: 대한미디어.
- 정광현, 원철식(2002). 라이프스타일, 여가인식과 만족의 관계. *관광연구*, 17(2), 23-41.
- 정영금, 윤소영(2021).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 분석을 통한 1인가구의 여가관련 산업 방향 연구. *여가학연구*, 19(4), 17-30.
- 조민구(2015). 여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영향요인의 실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주진영, 이세경, 원형중. (2021). COVID-19 (코로나) 발생 전후로 나타난 청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우울감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2), 87-99.
- 최석환, 김영환, 조운용(2009). 중년세대의 여가인식과 스포츠가치관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09-124.
- 차재빈(2018). 국민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가 정책에 관한 연구:수정된 IPA를 활용하여. *관광레저연구*, 30(5), 209-223.
- 최승묵(2020).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4), 389-406.
- 한진오, 정득, 이종석(2019). 공공여가시설만족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가정책 만족의 매개효과. *여가학연구*, 17(2), 61-85.
-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2015).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755-774.
- 황향희, 김보람(2012). 리듬운동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여가만족 및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6), 377-389.
- Beard, J. G. & Ragheb, M. G.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Jacobs, J. A., & Gerson, K. (2001). Overworked individuals or overworked families? Explaining trends in work, leisure, and family time. *Work and occupations*, 28(1), 40-63.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2005). Pursuit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11-131.
- Mansfield, L., Daykin, N., & Kay, T. (2020). Leisure and wellbeing. *Leisure Studies*, 39(1), 1-10.
- Peterson, C., & Stumbo, N. (2000).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Design*. MA: Allyn and Bacon.
- Tennur, Y. L.(2013). Lif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freedom of park recreation participants, *Social and Behavior Sciences*, 93, 1985-1993.
- Veenhoven, R.(1995).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ree theori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3-68.